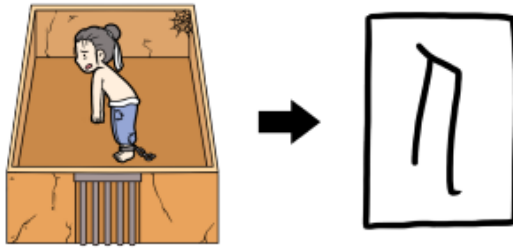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囚

가둘 수

囚자는 '가두다'나 '감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囚자는 口(에워쌀 위)자와 人(사람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囚자를 보면 네모난 돌레 안에 사람이 𠂆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을 가두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囚자는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𠂆

갑골문

𠂆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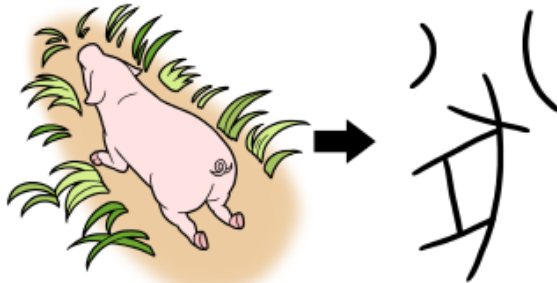
𠂆

소전

囚

해서

회의문자①



遂

드디어  
수

遂자는 '드디어'나 '마침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遂자는辵(쉬엄쉬엄 갈 착)자와豕(마침내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豕자는豕(돼지 시)자에八(여덟 팔)자를 더한 것으로 '드디어'나 '마침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본래 '드디어'라는 뜻은豕자가 먼저 쓰였었다. 갑골문에 나온豕자를 보면 돼지머리 위로八자가 𠂆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은 돼지가 풀숲을 가르며 달아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辵자가 더해지면서 돼지가 도망간다는 뜻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遂자는 돼지가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다는 의미에서 '드디어'나 '마침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𠂆

갑골문

豕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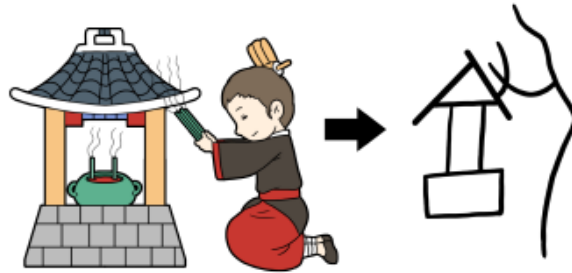
遂

소전

遂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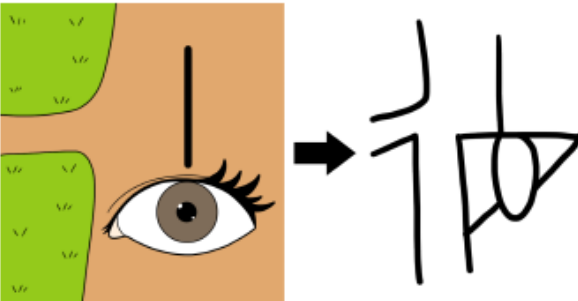
孰

누구 속

孰자는 '누구'나 '무엇', '어느'와 같은 의문형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孰자는 子(아들 자)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孰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당에서 제를 지내는 사람이 𠂔(숙)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羊(양 양)자가 더해져 𠂔 익힌 양을 올려 제를 지낸다는 뜻을 전달했었다. 하지만 후에 孰자가 '누구'와 같은 의문형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灬(불 화)자를 더한 孰자가 '익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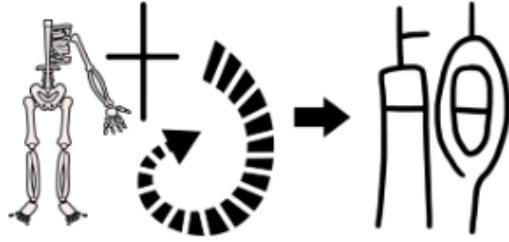
循

돌[環]  
순

循자는 '돌다'나 '돌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循자는 衤(조금 걸을 척)자와 廴(방패 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廴자는 투구의 차양막을 그린 것으로 '방패'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廴자가 아닌 直(곧을 직)자가 그려져 있었다. 直자는 눈 위에 획을 그은 것으로 '곧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모습을 그린 直자에 衤자가 결합한 循자는 도로를 순찰하며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한다는 뜻이다. 소전에서 直자가 廴자로 바뀌게 된 것은 발음요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갑골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殂자는 '순장하다'나 '따라 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순장'이란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살아생전 함께했던 가신들을 매장하는 장례 풍속을 말한다. 순장은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자진해서 죽는 일도 있었다.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윤회(輪廻)사상이다. 殂자는 이러한 윤회 사상이 반영된 글자다. 殂자에 쓰인 歹(뻘 알)자는 '죽음'을 뜻하지만 旬(열흘 순)자는 '열흘'이 한번 돈다는 뜻이다. 이것을 십간(十干)이라고 하는데,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그러니 殂자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라 할 수 있다.

殂

따라죽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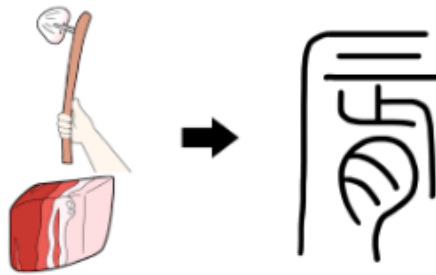
殂

소전

殂

해서

회의문자 ①



脣자는 '입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脣자는 辰(지지 진)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辰자는 조개 모양으로 생긴 낫을 그린 것이다. 脣자는 이렇게 조개 모양의 낫을 그린 辰자를 응용한 글자로 사람의 '입술'을 뜻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개가 입술을 닮았기 때문이다.

脣

입술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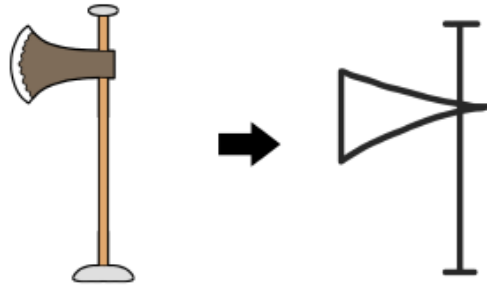
脣

소전

脣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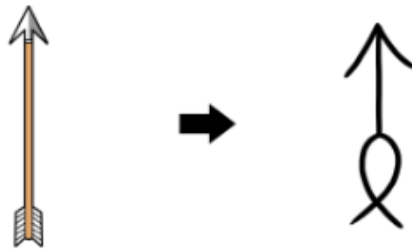
戌

개 술

戌자는 '열한째 지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戌자는 戌(창 모)자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戌자는 고대에 사용하던 창(戈)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戌자가 오목한 반달 형태의 창을 그린 것이었다면 戌자는 날이 볼록한 형태인 도끼를 𠂆 그린 것이다. 戌자는 이처럼 무기의 일종을 그린 것이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십이지(十二支)의 열한째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 십이지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와 같은 우주 만물의 순행을 나타내는 동양적 세계관을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人(사람 인)자와 戈(창 과)자가 결합한 형태의 戌(지킬 수)자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戌자는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필 획이 간략화되면서 戌(개 술)자와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矢

화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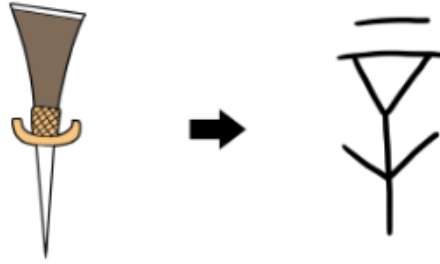
矢자는 '화살'이나 '곧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矢자는 화살을 그린 것으로 갑골문을 보면 화살촉과 깃이 그대로 𠂆 묘사되어 있었다. 화살은 사냥이나 전쟁에 사용하던 무기이다. 화살은 살상력이 있는 도구이지만 矢자는 공격보다는 화살이 곧게 날아가는 모습으로만 응용되고 있다. 矢자가 '곧다'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箭(화살 전)자가 '화살'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辛

매울 신

##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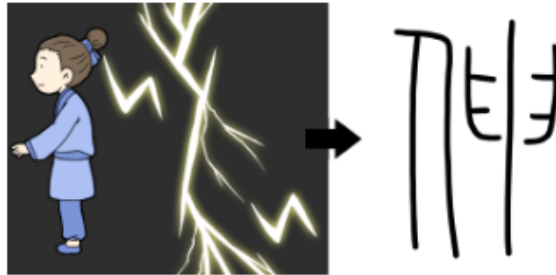
辛자는 '맵다'나 '고생하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지금의 辛자는 '맵다'를 뜻하지만, 고대에는 '고생하다'나 '괴롭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왜냐하면, 辛자는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붙잡은 노예의 이마나 몸에 문신을 새겨 표식했다. 辛자는 그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이다.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된다는 것은 혹독한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辛자는 '노예'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생하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辛자에 '맵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이들의 삶이 정말 눈물 나도록 고생스러웠기 때문이다. 다만 辛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노예'와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伸

펼 신

## 회의문자①



伸자는 '펴다'나 '내뻗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伸자는 人(사람 인)자와 申(펼 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申자는 번개가 내려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伸자는 이렇게 '펴다'라는 뜻을 가진 申자에 人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람이 몸을 늘려 펼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펼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포부를 넓게 펼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사물을 넓게 퍼거나 늘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